

## News

### 인수위 부동산정책 연기에…대출규제 완화 안갯속

뉴스

대통령직인수위원회, 부동산정책 발표를 예상했던 이번 주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여전히 안갯속… 특히 LTV, DSR 등 세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은행과 개인차주들은 혼란 가중… 은행업권 관계자 "회사 경영 방향 수립에 어려움…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공격적으로 영업해야 하는지 고민"

### 김기홍 JB금융 회장, 자사주 2만주 매입…“주주가치 제고 의지”

뉴스투데이

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, 12일부터 15일까지 자사주 2만주 취득… 사측 "주주가치 제고 등 책임경영 의지의 표현"

지난 2019년 5월과 11월, 2020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… 이번 추가 매입을 통해 총 10만 500주의 자사주 취득

### 은행 '규제 대응' CD 급증…대출금리 인상 '부채질'

데일리안

4개 주요 은행의 작년 말 CD 부채 잔액은 총 30조 4,464억원으로 20년 말보다 186.7% 증가… 신한은행의 CD 부채가 16조 3,996억원으로 동기간대비 176.0% 증가 예대율과 유동성 규제 정상화에 대응책으로 CD 매력 커져… 정기예금과 연계된 특성 상 보유량 중 일정 부분을 예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…

### 하나은행, 주담대 최장 만기 35→40년 연장

이데일리

하나은행, 21일 대출 취급분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려…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줄어들어 동일 DSR 적용시 더 많은 한도 가능 사측 "차주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기간 변경"…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심으로 적용

### 우량 보험사들까지…재무건전성 '초비상'

한국경제

생명 및 손해보험업계,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 하락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건의…

지난 3월말 기준으로 금감원 권고치인 150%이상, 보험업법 기준인 100% 선마저 밑돈 보험사가 여럿 나와…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에 나서…

### 올해 찍어낸 채권만 1.4조…보험사들 허리 훕다

대한금융신문

보험사들, 올해 원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한 보험사 7곳(농협생명, 푸른현대생명, 흥국생명, DGB생명, 한화손보, 메리츠화재, 흥국화재)은 1조 3,650억원 확충 지난달에는 코리안리도 2,000~3,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, 금액은 더 확대될 예정… 다만 하이브리드 증권 비중 높아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 가능

### 1분기 DLS 미상환 발행잔액 약 28조원…전분기比 1.8% ↑

EBN

3월말 기준 DLS 미상환 발행잔액이 27조 9,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8%, 전분기 대비 1.8% 증가… 발행형태별로 공모 35.6%, 사모 64.4%

삼성증권의 DLS 발행금액이 4,060억원으로 가장 커…이어 하나금융투자, 신한금융투자, DB금융투자, 교보증권 순

### 키움증권, '증권형 토큰'에 꽂혔다…신사업 낙점

핀포인트뉴스

키움증권,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업체들과 연이은 협력관계 중… 증권형 토큰 관련 다양한 서비스 발굴해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 19일에는 세종텔레콤과 MOU…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 내 지배력 강화 추진 계획… 향후 신규 사업 확대할 것으로 포부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